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참 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도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이천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후원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은 지난 세기 정도에 들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음악, 문학, 미술,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구현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건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큰 놀라움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과감하게 예술 분야에 투자하기에는 예술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정통 신앙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는



음욕과 분노를 유발하는 소셜미디어, 당장 끊으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렸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음욕이 치솟는다면, 소셜미디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당장 소셜미디어 앱의 작동 방식을 바꾸라.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예 앱을 삭제하라.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마 5:30) 예수님은 지금 점잖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주님으로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다. 맥락상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간음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마 5:28). 요즘같이 섹스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아야 한다. 섹스 산업이 잘 되는 건 남자와 여자도 가릴 것 없이 다들 음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욕은 결코 게임이 아니다. 그냥 교란 거리가 아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더

러 정육 극복을 위한 5단계 프로그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는 정육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생생한 언어로 잔인하게 보여주실 뿐이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마 5:29). 왜 몸까지 잘라야 하나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마 5:29).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마 5:30). 여기에서 그는 마음이 정육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 부위인 눈에서 전반적인 형태로 이동한다. 죄를 짓게 하는 게 손이라면, 그 손을 잘라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손은 종종 우리를 죄로 이끈다. 살짝 클릭하고 또 스크롤 하는 손가락 때문에 파멸이 올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정통 교리와 전통 기독교 윤리를 옹호하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기독교 신앙을 점점 더 적대시하는 예술 분야에 받을 들일 수 있을까?

잠재력을 지닌 가장 강력한 영역이 바로 예술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분야를 마냥 무시하는 게 맞을까? 놀랍게도 예술 분야에 관한 한 교회의 입장은 무관심 내지 완전한 포기이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불러넣는 예술을 창조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역에서 멀어졌고, 그럴수록 예술은 점점 더 세속화되었다. 우리 주변에 널린 예술의 풍경에서 그리스도를 거의 볼 수 없는 건 이제 놀랍지 않다. 예술과 아름다움처럼 강력한 대상은 초월적인 진리와 분리될 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술계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비난하고 항의하면서 더 멀리 후퇴할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다시 그 무대에 뛰어들어 변명이 필요하지 않은 진리의 선포와 때려야 할 수 없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말처럼 쉽지 않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신앙 해체를 겪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CCM 장르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케빈 맥스(KC 맥스), 데릭 웹(캐드먼스 폴), 조너선 스타인가드(호크 벨슨)의 신앙 해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굳이 언급하자면, 내게 맥스의 해체는 특히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인터뷰를 즐겼던 내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의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의성과 상상력, 흔히 기독교 예술에 결핍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구현한 그

리스도인 예술가의 좋은 모범이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 사이에서 해체주의가 그토록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적으로 뛰어난 많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경력 초기에 아무리 신앙이 신실해 보일지라도 현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라는 고도로 세속적인 영역에 오래 머물수록 점차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거의 불가피한 게 아닐까 싶다. 특히 음악 산업에서는 여행과 투어가 중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 주변 사람 대부분에 반하는 신앙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도전은 CCM이 고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통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는 진짜 기독교 노래보다는 신학적으로 모호

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영감을 주는 노래일수록 많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CCM에는 정말로 잘 봐줘서 "기독교적 음악"이지 문화나 시장의 압력이 조금만 가해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취약한 신앙을 가진 예술가로 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기독교 예술가는 각종 논쟁에 침묵으로 일관할까? 기독교 예술가라고 공연하는 인기 있는 예술가들의 또 다른 경향은 낙태나 LGBT+ 문제와 같은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서 회피한다는 것이다. 비록 신앙 해체까지 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들은 일부 청중이 외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철저히 안전한 신앙만을 추구한다. (3면으로 계속)

| | | |
|---|---|---|
|  |  |  |
| 3면 | 4면 | 16면 |
| 시론 민경엽 목사 | 푸른초장 신상은 목사 | 특집 밀알의 밤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플레루 FleuRu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당신은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간
카이로스: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시간
플레루: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시간

하나님은 크로노스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카이로스 찾아가셨습니다. 그 카이로스만도 감사한데 플레루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크로노스를 지난다고 하여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플레루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 플레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랑 가득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문장마다 목사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류응렬 목사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His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구메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발행인 칼럼

제군(諸君)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제군들! 여러분은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걷는 걸음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배 때 이사장이셨던 한경직 목사의 설교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그리고 보니 목사의 말씀대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은퇴도 했고, 살아도 가고 있다. 앞날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올망졸망한 고등학교 신입생 "제군들"에게 목사님은 성실한 작은 한 걸음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면서 일갈(一喝)하신 것이다. "제군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 "Gentlemen!"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제군들"이라는 격조(格調) 높은 호칭에는 어린 다음 세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어른들의 애정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 야무진 목사가 부르셨던 "제군들" 그 각각의 첫걸음이 지금은 끝내 서로 건널 수 없는 갈림길이 된 것이다. 그렇다. 제군들은 귀담아들어야 했다. 선진(先陣)들의 통찰력 가득 찬 거시적(巨視的) 말씀들을 귀찮다는 듯이 흘려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어른들은 많이 있어도 다음 세대를 향해 "제군들"이라고 부르는 소리로, 그들을 향해 일갈하는 외침도 듣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다감(多感)하고 다소 무서운 어른들이 그림자. 지금은 학생들이 많아도 자신들을 향한 "제군들"이란 부름에 숙연(肅然)함과 울림을 가질 순수(純粹)하고 기상(氣象) 있는 청소년들도 찾기 쉽지 않다. 세대 간의 gap을 초월케 하는 "제군들!"이란 소리는 정녕 듣기 힘든 것인가.

서구(西歐)에서도 그렇다.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는 구세군 창시자이다. 런던 빈민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런던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했다. 그가 이 땅을 떠날 무렵에는 그의 정신과 사역은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세군의 국제 총회의장에서 발표된 그의 마지막 설교에는 "제군들, 다른 사람들! (Gentlemen, other people!)" 이라는 한마디가 담겨 있었다. 이 한마디 설교에 윌리엄 부스가 평생의 목표로 여기고 살았던 자신의 믿음과 그 시대를 향한 도전이 함께 함축되어 있었다. 그나마 오래 전 이야기이다. 사명을 일으키는 "Gentlemen! (제군들)!"의 외침이 최근에 어디에서 있었을까.

세상을 진동(震動)시킨 첫걸음을 내딛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었던 "제군들"의 롤 모델(role model)이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첫걸음부터가 납달랐다.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했다. 그 후 평생 그들에게 "Yes"와 "No"가 분명했다. 이 제군들이 인류 역사에 크고 위대한 믿음의 족적(足跡)들을 풀무 불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 선명히 남겼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진한 감동을 계속 자아낸다. 수십 년 전 "제군들!"이라는 이름 안에 친구들과 함께 담겨 있던 필자가 부끄러움이 많지만 지금도 유효한 제군들 가운데 있고 싶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향해 "제군들이여!" "Gentlemen이여!"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고 그때의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가 내 신앙을 무시할 때

이 질문은 내가 세속 공간에서 다양한 신자들과 나누었던 여러 대화의 핵심을 다 짚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동료들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덧붙여 여러 다른 생각을 쌓아갈 수 있다.

우리 팀원들이 신앙을 가진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공통점이 없다. 동료들은 아마도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착각에 빠져서 성경이나 읽고 있는 덜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믿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의 널뛰기는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심하게 오르내릴 수도 있다. 동료들이 내 믿음을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고객이나 친구에게 나는 보통 이렇게 묻곤 한다. "그래?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근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안다. 내 대답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하는 사람을 더 설가시게 할 수도 있을 반응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깊은 사랑과 좋은 의도

직장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의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탄 원수는 관계를 망치거나 복음 전파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고 동료의 비웃는 말 또는 싸늘한 시선까지 악용할 수 있다. 사람이 두려워서(잠 29:25) 후퇴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결코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1. 씨 뿌릴 기회를 모색하라

어떤 동료에게는 당신이 진짜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다. 언론 또는 확산에 찬 온라인 무신론자가 말하는 영터리 예수에 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한다. 직장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기회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복음의 씨를 뿌릴 기회가 생길 것이다(고전 3:6-9).



회사 동료들이 내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렇다고 비열하고 적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도무지 신앙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지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회의적인 동료라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다들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엮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당신이 과거의 그 사람과 과연 얼마나 다를지 궁금할 수도 있다. 또는 아예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전파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망설임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미워한다고 놀라서는 안 된다(요 15:18). 세속 직장에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저항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지와 더불어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은 직장에서 당신을 쓰실 것이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장사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불신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우리는 세속 직장에서 일하는 독특한 소명과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

2. 신앙을 변증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신이 제기한 바로 그 이유로 믿음 나누길 주저한다. 다른 사람들이 행여라도 신앙을 농담으로 받아들일까 걱정한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가 전혀 근거 없는 믿음 체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질문받을 때 믿음을 변증할 책임이 있다(벧전 3:15).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효과(중요한 이유), 복음의 실제 메시지(복음이 말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의 신뢰성(믿을 수 있는 이유)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현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국제 목회자 복음과성령 컨퍼런스 Buffalo Niagara New York
International Gospel and the Holy Spirit Conference for Pastors
on Sep. 26-28 (Tue.-Thu.) 2023
at Northgate Church 5225 Harris Hill Rd. Buffalo, NY 14221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Let the weight of Your Glory fall!
Main Speaker: Rev. Sang Mok Lee
Speakers: Rev. Al & Deb Set Free Buffalo, Rev. Ted ESCC, Rev. Roy & Andrew Northgate Worship Team, Rev. Jason Mass Media, Emily Kim Interpreter
Staff: Barb K. Administrator, Rev. SooWon Coordinator, 정철현목사, 박병준목사, 정재경장로, 김선미목사, 백영리간사, Rev. Cliff, Rev. Bryan, 준비위원장, Head K.Chef, 전양, 중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도 예술가로...

(1면에서 계속)
그들의 두려움 중에는 근거를 가진 것도 있다. 기독교 신앙의 접점 더 많은 부분이 오늘날 세속 문화에서 옹호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과 공공연하게 연관되는 것은 온라인 분노, 팬들의 반발, 취소 가능성까지 불러일으킨다.

(비신자까지 포함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견해를 공유해야만 할까? 아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위치를 단지 부담("내가 행여라도 틀린 소리를 하면 어찌지?")으로만 여기는 대신에 은혜롭게 진실을 말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술 분야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동기가 청중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그들의 신실함을 높이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의 정통 견해를 타협하거나 숨기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좋은 사례가 바로 존 쿠퍼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스킬렛(Skilllet)은 몇몇 멤버들의 굴복하지 않는 입장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양극화 밴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주하고 유튜브 공연과 함께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신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에 미움받을 거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필요한 것: 변명하지 않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

모든 가수가 스킬렛만큼 큰 관객층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 쿠퍼는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 쿠퍼와 같이 충실한 제작자를 키우는 건 결코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명성이나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쿠퍼처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두려움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앙을 좀 더 담대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지지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사회의 다른 영역에는 명백한 보수 기업 그리고 미디어 기업을 위한 큰 시장이 존재한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조직과 사역, 예술가들의 지원을 갈망한다. 그들은 또한 "C" 레이블(Christian)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보다는, 신앙이 아름다운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좋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를 지원하고 싶어 한다.

단순히 낙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생명의 기적과 기쁨, 생명의 신성함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상상해보자. 이혼과 불신앙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은, 온전하고 건강한 가족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를 상상해보자. LGBT+의 자존심에 맞서 단순히 전통적인 기독교 성 윤리를 옹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이라는 유대 안에서 거룩한 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독교 예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멀리 보기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아야 한다. 예술의 포기는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다.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수 세기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기독교가 예술 분야에서 한 번 더 영향력 있는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 신앙 예술가가 취할 몇 가지 조치가 있다.

1. 좋은 예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자.

현대 기독교 예술은 대부분이 기껏해야 평균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수준 이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속적인 상대를 복음화하겠다는 욕심으로 세속 예술을 모방하려 애를 쓴다. 그 결과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는 별개로 아름다운 예술이 가진 힘의 가치, 그 자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이라는 언어 자체에 더 능숙해야 한다. 우리는 세속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복제하기보다는 관객이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영원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음악과 분노를 유발하는...

(1면에서 계속)

예수님은 음악을 심각하게 여기신다. 그렇다고 단지 음악만을 잔인한 용어로 정죄하시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분노도 정죄하신다. 분노는 내면화된 살인이다(마 5:21-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마 5:22).

분노와 음악은 열정(분노)과 의지(욕정)를 왜곡한다. 이런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같이 파괴한다. 나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가 저지르는 일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를 명명하고 또 정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 그리고 그는 음악과 분노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런 죄는 실로 무자비한 폭군이다.

음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묶어야 한다(마 6:23). 화를 이기려면 우리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야만 한다(마 5:43-48).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짐을 가져가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약하고 지진 우리를 향한 주

2.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목표로 하자.

뛰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인내하라. 좋은 예술을 창조하는데 충실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 충실하며,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라. 플랫폼의 크고 작고와 관계없이 성공은 그 자체로 이뤄질 것이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핵심이다.

3. 도구를 맘껏 활용하라.

기독교 예술가들에게 좋은 소식은 그들이 상상하는 작품을 관객의 손에 전달하기 위해 더 이상 음반사, 에이전트, 미술 큐레이터 및 기타 문지기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및 기타 다양한 도구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당신은 화가인가? 아니면 스케치 아티스트인가? 업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보라. 혹은 작곡가인가? 집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에 바로 출시하라. 당장 일을 시작하라.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세상의 관심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최고가 될 때까지 당신 자신을 재작정하라.

by Andrew Voigt, TGC

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 할렐루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 11:28-30).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음악을 파괴하고 분노를 분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죄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단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다. 명령하고 계신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애痛的 짐까지 다 짊어지셨던 분이 지금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모습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음악과 분노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는 십자가를 지셨다. 또한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신다. 어서, 어서 내게 오라고.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영혼을 망치게 놔두지 말라. 음악 또는 분노를 일으킨다면, 당장 잘라버리라. 당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by Wyatt Graham, TGC

시론

"Our Church ON THE WAY!"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한 사내가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은 작은 성공이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잘 올라가다가 계단 옆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작은 실패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닥은 다시 튀어 오르는 트램펄린으로 되어 있어서 이내 계단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반복적으로 계단의 그 칸을 맴돌며 제자리에서 한 칸도 올라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도무지 진전이 없다. 심지어 어느 때는 아래 칸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떨어진다. 어떤 때는 트램펄린에 떨어지서는 다시 계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트램펄린 위에서만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그 사내가 천신만고 끝에 계단 정상에 드디어 올라선다. 올라설 때 그 계단 옆에서 지켜보던 청중은 우렁찬 박수를 보낸다. 이상은 프랑스의 행위 예술가 요안 부르주아의 "성공은 직선이 아니다"(Success isn't linear)의 1분 30초짜리 공연이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작가는 성공을 향한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또한 인생에는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성공은 직선이 아니다. 글썄, 성공은 구부러진 곡선과 같다고 해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구부러져서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작은 실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작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도 모른다. 반면에 현재의 작은 성공에 자만해서도 안 된다. 자만은 다음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방심하게 만들어 실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성공에 자만하거나 실패에 낙담하고 주저앉는 순간 인생은 끝장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목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올라가기를 기대하신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능력으로 자기 앞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라고 자신이 끝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 어떤 목표인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달려갔다. 인생의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있다. "Our Church ON THE WAY!" 여기서 ON THE WAY는 "길 가는 중"이라는 말이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달성하려는 과정 혹은 여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들이 섬기는 지상의 교회는 아직 길 가는 중에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목적이까지 성공적으로 갈지 못 갈지를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길 가는 과정에서는 작은 성공도 있고 작은 실패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마지막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느 교회든지 작은 성공도, 작은 실패도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살아남는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로 시작한 개척교회나 약한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한국도 미국도 팬데믹으로 인해 1/6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팬데믹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길 가는 중에 일어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한다. "Our Church ON THE WAY"를 외치며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는 자는 복된다. minkyungyob@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스사이드장로교회)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를 방문했습니

다. 그는 수업 중인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지금 수업받는 학생들 중 노란 옷을 입은 소녀와 저기 저 소년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다면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이 유명한 교육학자의 말을 받아들여 지극정성으로 그 두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두 아이는 졸업할 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한 것에 감동한 교사는 교육학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학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교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사실 그 두 아이는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다만 눈에 띄는 아이 두 명을 골라 선생님에게 부탁했을 뿐입니

다. 이로써 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된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이 좋으면 좋은 기대를 하고 정성을 다해 대하므로 그렇게 기대한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한 선입관이 안 좋으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 하나님은 고물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각각 유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단면만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와 뜻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여 전혀 장점이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선하신 뜻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극진히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처음 제자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제 기대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

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격이 까칠해서 제자훈련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제자훈련을 정성껏 감당하여 나갈 때 놀랍게도 제 판단과 예측을 깨고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판단은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제 예측을 깨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에게 대한 처사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자세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회)



이 세상에는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인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없으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교류해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심은 본능적 필요입니다. 마치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펼침으로써 이성을 유혹하는 것이나 비싼 명품 가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연예인처럼 값비싼 차에서 내렸을 때의 '하차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회피성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맛집을 찾으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해도 다른 사람 다 가는 곳으로 가야 안심이 되는 성향입니다.

지 노력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간 지켜보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85살 된 갈렙의 변함없는 충성을 꼭 지켜보시고 산지를 개간하도록

1.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성입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눈에 들어온 인생은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평소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크고 작은 동작과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은 깊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

2.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살이의 가치의 두 번째는 선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위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배와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주변의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제 생활도 함께하였습니다.

4절에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구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섬김을 꼭 지켜보고 계신 것입

저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3. 세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살이의 가치는 바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생활입니다.

2절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넬료도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제 구시쯤 환상 중에 밝히보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4절에서는 그의 기도가 하늘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기도가 그 집 지붕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도착 된 기도...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 하늘에 도착한 기도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하늘나라 금향로 안에 가득 채워진 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도착한 기도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교회 지붕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기도일까요?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신 기도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과연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늘나라에 상달된 기도의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 건지, 무엇을 먹고 살 건지 이런 것만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착한 고넬료의 평소의 기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늘나라에 상달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결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jepe03@yahoo.com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의 가치

사도행전 10:1-4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그 짜릿한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역사는 참 길기도 합니다. 기원전 356년의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방화범 헤로스트라투스의 방화 동기는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젊은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과일 가게에 들어가 수박을 집어 들고 발로 차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확인했더니 주목받고 싶어서 인터넷에 올리려 일부러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연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정도가 심해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관심병이 있고, 뭇하우젠 증후군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꾸며내는 것이고, 공상허언증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목받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관심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감이나 존재감 부족을 해소하고 관심의 주인공(attention seeker)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목받

그들은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관계를 피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길 꺼리며, 자신이 나서거나 주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직장·학교 등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고 6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무르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은둔형도 아니고 회피성 인생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attention seeker들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기 원하면 결국에는 실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목받으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를 꼭 지켜보시다가 그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Reset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지켜보시다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유혹 속에서 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깊이 관찰하고 계실까? 아니면 수많은 인생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내 앞을 패시, 지나가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까? 그냥 지나가 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바꾸실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꼭 지켜보신 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서 내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로 확장 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꼭 주목하시고 관찰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부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주목하셨습니까?

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 4: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읍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 당했습니다. 남 유다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요 4:23).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새크라멘토 학부모 권리 보호 행사와 승리



8월 21일, 새크라멘토에 마마베어 파파베어들이 몰려들다!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 통제하는 악법들을 막고자 주 청사 앞에 모여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 그 결과로 막아낸, AB1078!

지난 월요일 8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정치의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들에게까지 기억에 남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힐러리 허리케인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 운항 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학부모/조부모/신앙인들이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새크라멘토 주 청사 앞에 모여, 그들의 열정 높은 목소리와 기도로, 100도에 가까운 새크라멘토 날씨보다 더 뜨거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11시 집회가 있던, 국회 의사당 앞에는 여러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Stop the Democratic grooming of our children, - 미성년자를 성애화 하는(법안을 만드는) 민주당의원들은 STOP하라"

또는 "My child is not your science experiment -내 아이는 당신의 과학 실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심지어는 무슬림 여성들까지 나와서 "학부모 권리 보호"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더 눈에 띄는 팻말은 아이들이 들고

있던 팻말이었습니다. 팻말들 번역: "My Parents Know me BEST! -내 부모가 날 제일 잘안다!" "California ISN'T my mom! -캘리포니아는 내 엄마가 아니다!"

"Today's school lesson: The STATE ISN'T OUR PARENTS!" - 오늘의 배움: 주정부는 나의 부모가 아니다!"

엄마가 든 팻말: "FAMILIES OVER POLITICS!" - 정부 위에 가족이 있다! 이 행사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저희 TVNEXT 가 지난 13년간 파트너 단체로 함께 한 미국단체들과 연합한 "Coalition for Parental Rights" 단체에서 공동 주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선두를 뛰고 있는 California Family Council, Real Impact, Capital Resource Inst. 에서 주최하여 오전과 오후에 각각 1시간씩 학부모들이 악법에 어떻게 실제로 반대할 수 있는 지, "Training 훈련" 시키는 시간 들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준 후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회 전후에, 저와 같은 리더들 (Lobby leader) 따라서, 상/하 의원들을 방문하여, 로비 리더들이 대표로 악법에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있으면, 짧게 그리고 예절을 지켜 의원들에게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끄는 오전 팀 중에는 몇 명이 짧게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아침에 나왔던 한 조부모는 자신이 학생 때 레즈비언이었는데, 레즈비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10명의 손자/손녀들이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자신의 스토리를 눈물로 말하며, 만나는 의원들에게 제발 이 악법들을 반대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로비 데이에서 저희 단체들이 반대한 발의안들과 공청회까지 있던 발의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B665 - 주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자녀 정체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 권리" Kidnapping Bill

AB957 - 트랜스자녀와 동의하는 부모의 양육권만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주 정부 판사의 의무

AB1078 - 지역 교육 위원회(Local School Boards)에 대한 주정부의 강력한 통제

AB 5 - LGBTQ를 인정하지 않는 학

부모들의 PROFILE 을 만드는 "교사훈련" 의무화 (즉, 학부모 고발서 작성인)

SB596 - 학부모의 "자녀 정체성 교육" 의견들을 완전히 차단 - 교사의 의견만 받아들여지며, 학부모는 1000불 이상의 벌금 또는 JAIL 까지 갈수있음.

11시에는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강사들을 초청했기에 내용들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1100명이 넘는 학부모/조부모 시민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GUEST SPEAKERS 중 두 명 것만 나눕니다.

Zachreson(자크레슨): 자크레슨 은 말하길, "오늘과 같은 학부모 권리 운동이 "공화당" 또는 "민주당"과 같은 식별자를 초월한다..... 이것은 협력적인 운동이며 오로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라고 외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종교가 없는 자크레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기 전까지 평생 지지 정당인 없는 유권자였습니다.

ERIN FRIDAY : "트랜스 이데올로기"로부터 딸을 구하기 위해 연설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에린 프라이데이는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내 민주당 친구들이 우익 종교 문제라고 말하는데, 나는 종교도 없고 평생 민주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enough is enough (더 이상 참을수없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악법들은 악법이 맞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 치노벨리 학군 교육위원장인 SONJA SHAW, 3살짜리 아들의 몸을 여자로 바꾸려는 와이프와 법적 싸움에서 이긴 HARRISON TINSLEY, 치노벨리 갈보리교회 목사님 JACK HIBBS, 그 외 미국단체 중 선두에서 뛰고 있는 대표자들 등등 매우 귀한 연설들로 인해 참석한 시민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한인 목사님 내외분 (HMC), 남가주 오씨맘, 그리고 여러 교역자님과 성도님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소식! 이날, 반대운동을 한 AB1078 이 공청회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할렐루야!

행사 동영상과 더 자세한 업데이트는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도 하와이에 살다가 왔습니다. 한인 최초 이민자가 120년 전에 하와이로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과 이후의 한인 이민자의 삶을 알고 싶습니다.

- 셀비치에서 홍장로

최초 한인 노동자 이야기

A: 한인 최초의 이민자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 이민자들이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1621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온 영국 청교도들의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한국 청교도의 발걸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로 1903-1905년까지 7,000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왔는데 남자들만 왔기 때문에 결혼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박희민 목사의 '이전보다 큰 영광'이란 설교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여성 혹은 일본 여성들과 결혼하기도 하였는데 언어와 문화가 달라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진 신부(Picture Brides) 말이 생겨났습니다. 남자들이 사진을 한국에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신부가 되겠다고 여자들이 하와이로 와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만 믿고 왔다가 실제로 남자를 만나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젊은데 실제로는 할아버지만큼이나 늙은 얼굴을 보고 실망한 여자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일도 있었고 결혼을 거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인 노동자들은 하루 67센트의 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한국계 미국인의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한 가정당 연 수입이 1,800달러로 1,400달러인 일본인과 중국인 1,600달러인 백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는 일본인 노동자가 6만명이나 되어 그들이 노동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농장 주인은 끄떡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05년까지 7,000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들어 왔는데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결국 하와이 이민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노동 이민자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민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민 오자마자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친교를 나누고 향수를 달래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 하와이에는 39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1903년 11월 10일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민자들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때 박용만과 이승만 박사가 의회체를 맺고 국민회를 조직하여 이민자들 1인당 5달러씩 내었다고 합니다. 5달러씩 7,000명이면 3만5천달러로 그 당시의 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1920-30년대에 접어들자 하와이 농장을 떠나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엠파랜드, 리들러,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때 벌써 사병순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자 한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광복을 위해 지원하는데 앞장섰고 독립 외교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교포 사회의 구성원은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뜻깊은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기념 학술세미나

8. 17 (목)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

신선목: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
최운정: "WMU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

기념관 개관식

9. 24 (주일)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 기념 설교집 및 기념품 증정

기념 음악회

10. 21 (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다른 오라토리오 공연

비전 넥스트

11. 11 (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교

선교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 논문집 및 화보집 출간식
임동선 목사 영상 상영회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학교 홈페이지(kr.wmu.edu) 참조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라”

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중 6백만이 아무런 이유없이 죽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일 되새김하듯

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낸 많은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일 그 말씀으로 묵상할 때 주변의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주어진 것이

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과정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3살 때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숨털이 물을 흡수하듯 빨아들이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먹어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기에 유대인 훈련 중 웨마교육이 중요한 과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교제로 선택해 성경 암송을 적용한 웨마교육은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는 기본이 된 것입니다. 암송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특히 어려울 때 암송한 말씀은 평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양식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있을 때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매일 암송해야 하는 성경구절을 꾸준히 암송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암송의 달란트를 주셔서 사물의 이름과 새로운 지식을 쉽게 암기하고 오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암기력과 기억력은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반면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은 향상 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후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다른 지식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 됩니다. 어릴때 암송한 말씀은 처음에 그 뜻도 모르고 외우지만 놀랍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것은 바로 말씀

으로 인하여 인성이 갖춰지는 효과를 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9월에 학생 성경 암송대회 때 영생의 모든 자녀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성경을 암수하거나 불에 태우는 일도 진행되고 있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안이 마음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라며 말씀 암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가정 교회든, 동굴 교회든, 배 선상의 교회든 아

니면 헛간 교회든 말씀 사랑과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은 최고의 훈련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의 능력은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나누고 힘을 주게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역사하는 살아있는 미주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43년 주민 심긴 美 장로교회, 폭풍으로 지붕 붕괴

143년 역사를 지닌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회 건물이 지난 25일 새벽 폭풍으로 지붕 판넬이 일부 붕괴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미 뉴라이프갯보리교회(New Life at Calvary Church)는 예배와 식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동고동락해온 장로회 소속 교회다. AP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교회를 비롯한 지역 내 건물들이 다수 무너지며 손상을 입었다. 교회 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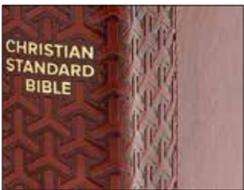


켈리 설리반 뉴라이프갯보리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건물은 큰 피해를 보았으나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재건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폭풍으로 인해 교회 행사는 모두 취소됐으며 주일 예배는 27일 오전 10시 교회 건너편에 위치한 주차장 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지역 주민은 SNS를 통해 “내가 지금껏 경험한 일 중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 이 일이 금요일이 아닌 주일 아침에 일어났다면 교회에 출석한 아이들이 위협했을 수도 있다”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폭풍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도달한 시각은 24일 목요일 늦은 밤이다. 당시 폭풍의 폭은 약 137m, 길이는 1마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미시간주 39만명과 오하이오주 12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영어 성경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 미 기독교인에 인기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CSB·사진)’이 미국 기독교인 사이에서 인기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22일(현지시간) 미 기독교출판협회(ECPA) 집계 결과를 인용해 “CSB는 지난 4개월 중 3개월간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이 됐다”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어 성경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ECPA에 따르면 CSB는 이달 들어 NIV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으며 ESV가 그 뒤를 이었다.

CSB는 2017년 라이프웨이와 B&H 퍼블리싱 그룹이 발간한 ‘홀먼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HCSB)’의 개정판으로 출판됐다. 가독성과 번역의 정확성 면에서 ‘최적의 동등성’을 추구한다. 로고스 성경 프로그램의 ‘워드바이워드’ 블로그 수석편집자인 마크 워드는 “CSB는 정의할 수 없는 화제성을 갖고 있다”며 “미국 기독교인들이 찾고 있는 영어의 가독성과 단어 대 단어 정확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SV가 개혁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성경이라면 CSB는 복음주의권을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B 사용자 70%가 성공회 장로교 오순절 등 교파에 속한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CSB의 미국 내 점유율은 13%를 차지한다.

킹 목사 연설 60주년에... ‘폭인혐오’ 충격으로 3명 희생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잡화점에서 26일 흑인을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포함 4명이 숨졌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DC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한 날 벌어졌다.



총격 범은 이날 오후 2시쯤 ‘달라 제너럴’ 매장에서 총격을 가해 흑인 남성 2명과 흑인 여성 1명을 살해했다. 20대 백인 남성으로 알려진 범인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인종 혐오에 따른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T.K. 워터스 잭슨빌 보안관은 “(총격범)은 흑인을 증오했다”고 설명했다. 총격범은 범행 전 집에 있는 컴퓨터에 흑인에 대한 증오심과 공격 동기를 설명하는 세 가지 성명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발견한 범인의 아버지가 오후 1시53분 당국에 신고했지만 그가 이미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건이 2018년 잭슨빌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더 잭슨빌 랜딩’ 사건 5주기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나 디간 잭슨빌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총격범이 남긴 글에서 2018년 사건을 암시했다. 범인이 아마도 이 날짜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총격범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국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날 오전 11시39분쯤 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미시간주 클레어 카운티의 집을 떠나 인구 97만여명 중 약 30%가 흑인인 잭슨빌로 향했다. 총격범은 범행 현장으로 가기 전 역사적으로 흑인이 많이 다닌 에드워드 워터스대 교정에서 목격됐다. 범행이 이뤄진 날 워싱턴DC 내셔널 몰에는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맞아 수천 명이 모였다.

1963년 8월 28일 당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25만여 명을 이끌고 행진을 주도하며 역사적 연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를 남겼다. 킹 목사의 손녀 윌란다 킹(15)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연설했던 자리에서 “오늘날 인종차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예배당, 학교, 쇼핑센터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할아버지에게 그의 업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돼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일주일째 꺼지지 않는 인도네시아 화재... 주민들 건강 문제 호소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인 반둥시 인근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19일 서자바주 반둥시 서쪽 사리묵티 지역의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작됐다. 이곳에는 반둥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1500t의 폐기물 가운데 80%가 모인다. 리드완 카빌 서자바주 지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버린 담배꽂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배꽂이에서 시작된 불은 오랜 건기로 바짝 말라 있던 쓰레기들에 빠르게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로 번졌다.

서자바주 정부는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고온과 강풍의 영향으로 불길이 쉬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0.25km 규모의 매립지 중 0.15km가 불에 덮이지만 불은 계속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25일부터는 소방 헬기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압둘 무하리 대변인은 “전날 오후까

지 200t의 물을 뿌렸다”며 “최소 사흘은 더 물을 뿌려야 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쓰레기 수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 보건소에 따르면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최소 67명이 호흡기 문제로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유독성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입원했다. 당국은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연기로 덮인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을 내렸다.

하와이 화재, 전력사 책임론 무게 당국, 소송제기

기록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섬 당국이 현지 전력 95%를 공급하는 전기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우이 카운티는 24일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 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강풍에 불길 송전선이 시발점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전선이 끊기면서 일어난 전기 스파크가 마른 풀밭으로 튀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피해 지역인 라하이아의 한 주민이 활영해 SNS에 올린 영상에는 풀밭에 쓰러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담겼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강풍과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전력을 차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운티 당국도 소송에서 이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7일 미 기상청(NWS)의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전기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게 당국 측의 주장이다. 당국이 입은 피해로는 ‘공공 인프라 손실과 화재 대응 비용, 세입 손실, 환경 피해, 역사적·문화적 랜드마크 손실 등’이 적시됐다. 다만 이번 소송은 공공 당국이 입은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3일 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이며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이다.

하와이안 일렉트릭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화재 이후 하와이안 일렉트릭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주민 소송이 이미 여러 건 제기되며 주가는 이달 들어 약 3분의 1로락으로 추락했다. 3곳의 신용평가 기관이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강등했다.

직장 동료가 내 신앙을 무시할 때...

(2면에서 계속)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당신이 기독교 변증론을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을 권한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중요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되새김으로써 당신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하

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

3. 교제에 참여하라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무시하는 바쁜 전문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이겨낼 것이다. 서로가 기도의 용사, 책임 파트너, 그리고 공유하는 성경 세계관의 렌즈를 통해 모두가 함께 겪는 도전을 논의하는 공동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공동체가 아직 없다면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라. 교회 소그룹에서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는 교회 친구 몇 명과 주간 커피 일정을 잡는 건 어떨까?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일과 전에 갖는 성경 공부는 어떨까? 당신의 초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될지, 당신은 분명히 몹시 놀랄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가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직

장에서 만나는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나도 이 부분에서는 유죄이다. 팀장이었을 때, 우리 팀이 분기별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면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확실하다고 믿던 거리가 날아갔을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직장에서 믿음을 반대하는 반응을 접할 때, 차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유지하고 진리에 맞을 내리라. 하

나님이 계신다. 당신은 결코 혼자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속해있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줄 형제들을 가까이 두라. 예수님 안에 맞을 내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데에 소홀히 하지 말라. 영성 훈련을 통해서 당신은 나무에 연연하지 않고 숲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동료들이 비열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직장 동료들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선택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서 종교 차별이 있는 경우, 인사담당자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상황이 당신의 영적 건강과 안일에 계속해서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멘토의 조언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어두운 세상 직장에서 빛이 되어 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직장에서 당신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by Miranda Carls, TGC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5. 전경준 (1870-1939)

전경준은 1870년 10월 21일에 경북 길안면 목계리에서 아버지 전청Y와 어머니 김순Y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35세가 되던 1905년 2월 14일에 일본 고베에서 몽골리아 선박을 타고 그달 25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할아버지고, 영문 이름 글자는 Chun Kyeng Choon 또는 Chun Kyung Choon이었다.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다가 전경준은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1910년에 누아누 스트리트에 집을 얻어 살면서 폐물 상점에서 활동했다.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할 때 할아버지였는데 이때는 독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

전경준은 이규연 등과 함께 하와이 구세군 정령인 브란취 각스의 부인이 찾았다. 각스는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1883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인도에서 단기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한 적도 있었다. 각스 부인의 후원으로 1912년 10월 15일에 하와이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놀룰루에서 한인 구세군 영문이 설립될 수 있었다. 그리고 A.C. 닐슨 정위가 한인 목양 책임 사관이 되었다. 그해 12월 10일에 호놀룰루의 구꾸이 스트리트에 월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한인 구세군 영문을 세웠다. 교인이 적을 때는 15명이었고, 교인이 많을 때는 40명이었다.

영문을 세운 그해 구꾸이 스트리트에서 빈야드 스트리트 가까이 있는 리버 스트리트로 구세군 한인 영문을 이동했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이 크리스마스추리 축제를 개최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인 소년과 소녀 약 3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

전경준 등은 전도하는 한편 성령학교를 설치하였다. 이 성령학교에서 고아를 양육하였고, 어린이를 위

한 국어 교육에 힘썼다.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이 성령 학교는 1937년 2월에 폐지되었다.

창립 이듬해인 1913년 10월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지역 신문에 5일이라고 적혀 있어 설립 날짜가 15일이 아니고 5일인지 모르겠다.

1914년 4월 11일에 자유교회가 5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대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회장 김종학이 개회 취지에서 하와이 한인인 수천명 명절은 오직 돌밖에 없는데 하나는 국민공회가 조직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교회를 개척한 날인데 이들은 장차 조선 민족 가운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과 같은 날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홍균 목사는 교회의 전진은 교인이 불어 나가는 성장이 아니라 참신앙과 참사랑을 들어내는 증거인데 이를 조선 반도에 옮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감독교회 목사 박상학, 중앙학원 교장 이승만, 국민보 주필 박용만, 부인회 회장 황마리아 등과 함께 전경준도 10분 동안 간단하게 연설하였는데 웅웅한 화기가 사람의 굳은 창자를 감화하였다.

구세군 한인 영문을 개척한 지 5년이 되던 1917년 6월에 47세의 전경준은 호놀룰루에서 사친 신부로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46세 된 엄근섭과 결혼했다. 엄근섭은 1871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부부는 모두 40대 중반이었다.

라하이나 구세군 교회

1917년에 전경준은 라하이나 구세군 교회로 전임되었다. 1920년 10월 2일에 전별회를 개설한 후 전경준은 3년간 사역하던 라하이나 구세군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달 8일에 발간된 국민보는 '라하이나 구세군 교회에서 온 편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다: "경계자! 본 지방 구세군 영

문 연대 정교 전경준 씨는 3년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동포에게 전파하며 우리 공회 진출 갈렷하다가 사령관의 명령으로 호놀룰루 구세군 고아원 간사로 이거하게 되매 본 지방 일반 형제자매는 전 씨 내외분의 떠나감을 심히 섭섭하게 생각하므로 본월 2일에 전 씨 내외분을 위하여 본 지방 구세군 영내에서 전별회를 열고 피자에 3년간 전애지정도 설회하며 피자 육신은 멀리 있을지라도 영혼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같이 하리라는 전 씨의 연설이 있을 후 폐회하였사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대 한공화민국 3년 10월 2일. 라하이나 구세군 교회 남녀 교우 등 백."

1920년 3월에 구세군 교회 하사관이자 그로브팜 농장 노동주선인으로 활동하던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의 아카쿠이우에서 독막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해 8월에는 와이올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교회 전도사인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구세군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당했다.

호놀룰루 보육원

전경준은 1920년 10월에 호놀룰루 구세군 보육원 간사로 전임되었다. 센터럴 유니온 교회의 요청에 따라 첫 구세군 과전대로서 5명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1894년에 호놀룰루에 도착한 이후 1903년에 카이우라니 소녀 보육원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하와이 토착 소녀들만 수용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소녀의 첨대가 있었다. 1920년에 직업 훈련이 필요하여 1922년에 직업 훈련 건물을 지어 와이올루아 티룸이라고 불렀다. 아침 클래스가 만든 제품을 매일 오후에 티룸에서 사용하였다. 전경준은 이곳에서 1923년까지 약 3년간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상조회

1923년 6월에 호놀룰루에서 한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인 상조회가 조직되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한인 노인들이 피차 재정과 위문으로 말년에 서로 돕자는 목적 이외에 회원 중에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면 한인 상조회의 재정으로 장례를 지내게 하였다. 150여 명이 등록하여 모은 회비가 1,000여 달러에 달했다. 전경준이 한인 상조회 회계로 선임되었다. 그 외 간부로는 회장에 백락현과 총무에 최용선이 있었고, 이사장에 민찬호가 선출되었다.

그해 10월에 누아누 청년회관 체육실에서 한인 상조회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회원과 방문한 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회장 백락현의 사회로 성대한 순서를 가졌다. 회중 일동

의 합창과 감리교회 목사였던 현 순의 기도, 한인 상조회 총무 류준관의 취지 설명, 한인기독교회 목사 민찬호의 연설이 있었다. 한인 상조회가 조직된 지 4개월 만에 20여 명의 회원이 늘어 170명에 달했고, 저축금이 500달러가 많아 1,500달러에 달했다. 장차 묘지로 쓰기 위하여 갈레히에 약 30 에이크의 땅을 구매하기 위하여 교섭 중이었다.

한인 상조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회계였던 전경준이 보수를 받지 않고 매일 몇 마일씩 걸어서 다니면서 방문하여 월 25센트의 회비를 거두어 매년 몇백 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다. 지난번 보고에 수입액이 2,123달러 61센트였는데 1924년 4월에는 지출금을 제해도 잔금이 1,998달러 11센트나 되었다.

한인 기독교회

1924년 6월에는 하와이에서 전례 없이 결혼식과 약혼식이 많았다. 그해 28일 저녁에 전경준은 감독교회(성공회)에서 한국에서 온 부인과 재혼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준 외에 7월에 결혼한 한인은 여럿 있었다. 6월에는 주조섭과 김엘리스가 결혼하였고, 21일에는 이우찬 박사와 백인 여성인 활더린이 결혼하여 '동양과 서양이 서로 모이지 못하리라는 이론을 한꺼번에 깨뜨렸으며,' 28일 저녁에는 두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경준 외에 강영옥과 남피나가 감리교회에서 결혼하였다. 그달에 약혼식도 있었다. 힐로 지방에 거주하는 정동호와 김경수가 약혼하였고 호놀룰루에서 세 팀이 약혼하였는데 최갑출과 김도라가 약혼하였고, 정덕홍과 이필노가 약혼하였으며, 최월림과 정미수가 약혼하였다.

1926년 1월에 하와이 교민단은 새로운 간부를 조직하였다. 이때 전경준은 법무에 선출되었다. 총단장은 239표를 얻은 최정덕이 당선되었는데 하와이 정형에 매우 밝아 하와이 한인계는 서광을 기대하였고, 부단장에 186표를 얻은 김성기가 선임되었으며, 그의 간부로는 총무에 이은구, 서기와 재무에 김광재, 상무에 민능호, 구제원에 김상의, 학무에 양유찬이었다. 교민단은 그달 11일부터 18일까지 계속 모여 그해에 할 사업을 의결하였다.

1918년 12월에 이승만 박사의 지도로 30여 명이 모여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를 조직하여, 이듬해 민찬호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푸우누이에 있던 한국여자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 수가 증가하여 와이올루아에 있던 한인 기독교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알리이오니 학교를 거쳐 노스 스텔 스트리트에 있는 오늘날의 한인양로원에 처음으로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였다. 호놀



와이올루아 티룸



오늘날의 한인양로원

룰루 한인기독교회는 1928년 7월 1일에 재무 김성기의 사면을 허락하고 그를 대신하여 전경준을 재무로 임명하였다. 그해 전경준은 한인상조회 회관 건축을 위하여 건축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하와이 전역을 여행하였는데 이 여행 때 한인기독교회 현황을 일반 교우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1929년에 한인상조회는 전경준의 노력으로 노스 스텔 스트리트 270번지 뒤편에 있는 집 한 채와 레이아 지역의 마키니 스트리트에 제 두 채를 18,000달러로 매입하였는데, 7,000달러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를 받았다. 노스 스트리트 집을 '한인 노인집'이라 불렀다.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이 휴장을 뽑아 휴장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자취하면서 월세를 지불하였다.

1935년 7월에 하와이 국민회가 노령화되는 한인의 장래를 위하여 호상부를 조직하였으므로, 1923년에 조직된 한인 상조회는 조직된 지 16년이 되던 1939년에 릴리하에 있는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부속 기구로 재편되었고, 오늘날 하와이 한인양로원이 되어 한인 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확대되었다.

1938년 4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정문을 서울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누가 모형으로 만들어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가진 예배당을 완공하여 헌당식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삼았다.

전경준이 1938년 6월에 호놀룰루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였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듬해인 1939년 6월 29일에 필시티에서 향년 6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813-4499, www.lsgc.com 1645 W. Edgemont St., LA, CA 90027</p> | <h4>남주주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facebook.com/srscs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 <h4>남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
|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5:00(영아),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 <h4>세계사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8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 <h4>세계선교회</h4>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3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
| <h4>살비치 사랑교회</h4> <p>(Seaf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 / Seaf Beach Clubhouse 3 room 119</p> |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오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 <h4>엘피스사역원</h4>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선교사총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주말상담: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h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일요일예배: 오후 1:30-5:00(영아), 7:30 만해사경기도: 오전 3:55일 24시간 온론 Tel: (714) 446-6202, www.gaeon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화: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
|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464-9259, www.socalss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일 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e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h4>히슬스망교회</h4> <p>담임목사: 김택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어정권이 임하지"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오웬의 머리말] (4)

5. 기도문 사용의 강요는 성령의 은사들을 매장시키는 것

기도문 사용의 강요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게으름과 불신앙에 진노하시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철회하실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회회를 지키시기 위해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지속적인 중보사역에 대한 증거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공격 예배와 관련하여 로마 가톨릭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지금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의 기초이자 미사의 모든 내용이 놓여 있는 형식적인 기도문의 사용이 무너지면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나온 구덩이로 빠져 버릴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들의 사적이며 공격적인 기도에 있어서,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 자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죄와 무지 그리고 미신들을 따르도록 종용한다. 그들의 주장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 혹은 모든 헌신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알려졌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헌신의 제도가 명확히 기도에서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교회에서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령과 그의 사역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교회도 동일하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헌신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약속된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 무지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6. 교회에 약속된 성령과 성령의 사역, 기도에 관한 정리

1) 어떤 사람이나 교회도 공격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예배에서 자신을 형식적인 기도문에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2) 성경에는 특별히 기도할 때 도와주기 위해 세상의 끝날 까지 교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거룩과 위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현재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3)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약속들은 경멸을 받을 것이며, 진리와 함께 효력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4) 성경에는 이것들이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간구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려왔다.

5)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의 의식이나 형태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 외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룬 자의 빛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모임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없다. 이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지칭하신 것이 아니며, 사도들이 행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행한 것도 아니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다.

6) 교회들 사이에서 믿음의 일치와 교제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 교리적인 면과 예배의 형태까지도 일치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7) 기도가 다른 것들과 차별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편견이나 나태함이나 혹은 반대되는 원리와 의견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8)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부지런히, 자주,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같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소용이 없다.

7.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세상에서 많이 비난을 받아왔지만, 오늘날처럼 성령의 모든 내적인 은혜와 역사가 그토록 심하게 비난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펠라기안(Pelagians)조차도 그런 극단적인 비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공개적으로 하늘의 일들에 대해 비난하고 대담하게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과 경험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욱 부패해질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의 영혼 안에서 신앙의 힘과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의 고백은 거의 쓸모가 없으며,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이 신적인 계시에서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몇몇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들의 거짓된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무어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설령 참이라고 할지라도, 칭송을 받아야 할 것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는 무신론자들과 비성경주의자들과 복음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며 세속적인 것에 매달려 진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복음적인 은혜를 도덕이라는 위선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증거와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과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 대담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국가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몰들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불경건과 온갖 종류의 부도덕, 넘치는 죄악들을 통해 드러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며 충분히 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존하고 이런 악에서 회회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인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의 효력이 나타나는 원천과 원인에 대해 확증할 필요가 있다.

younsu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일상칼럼

구출된 양파

며칠 전에 양파를 사러 동네 마켓에 들렀다. 여러 종류의 양파들 중에 "rescued organic onion, 구출된 유기농 양파"라는 꼬리표가 달린 양파가 있었다. "구출된 양파"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물었더니 양파가 조금 못생기고 작아서 불인 이듬이라고 한다. 모양이 자잘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싸게 팔면서 구출한 양파라고 부른 것이다.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지 말쑥한 양파를 싸게 파니까 좋아라 하고 한 자루를 사 들고 와서 이런저런 요리에 잘 사용하고 있다. 못생긴 모습으로 인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구출된 양파를 먹으면서 흉악한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 내신 그 은혜가 새삼스러운 것은 최근에 겪은 친구 권사님의 죽음을 앞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이 있음을 기대하는 영생의 소망만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재작년부터 곁에 있는 친구들이 매년 한 명씩 주님께 갔다. 누군가는 죽음을 자주 보는 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표시라고 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구절은 대학 시절 성경 암송을 할 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인식된 진리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정을 나누며 살던 친구들이 곁을 떠난 후 문득문득 떠오르는 옛 추억들을 삼켜 내는 일은 슬픈 일이다. 이번 7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은 내가 이전 교회 교육부에서 일할 때 사역을 시작한 첫 주부터 그만두던 날까지 십이 년 반 동안을 한결같이 교사로 도와주셨던 권사님이다. 주일 예배 후 교사회의 시간은 늘 권사님이 준비해 오신 군고구마 등의 간식으로 풍성했고 내가 그 회의를 떠난 후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시게 되어서 십년 넘는 시간을 언니처럼 곁에서 늘 나를 챙겨 주셨다. 내가 7월 초에 아픈 언니를 보러 한국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도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 잘 다녀오라며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시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권사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권사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순수한, 진실된, 한결같은, 편안함..." 이런 단어들이다. 여유가 없는 생활이었지만 무엇이든지 나누기를 좋아하던 권사님은 감자를 많이 샀다고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시기도 하고, 사과가 크고 맛있다고 들고 오시기도 했다. 우리 막내가 선고를 갈 때면 감지 병에 한가득 모은 동전을 선교헌금이라고 주시기도 했다. 작년에는 장로님 맥 감나무에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렸다고 감을 따러 오라고 하셨다. 내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감이 다 떨어질 무렵에야 장로님 맥을 갔더니 주렁주렁 열린 감을 거의 다 따먹도록 바쁘다고 못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감 몇 개를 나무에 남겨 놓으셨던 사람이 많은 권사님이셨다. 떠나신 후에 권사님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그분의 순수함 때문이라. 장로님이 권사님을 위해 마련한 화환에 적힌 '여보, 이제야 당신이 보이는군요'라는 글은 언변도 없고 겉으로 드러남도 없었던 그러나 진실했던 권사님을 그대 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는 죽음의 시기도 모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지 죽음의 모양도 모른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은 더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로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모습과 시간마저도 완전한 것임을 슬픔 속에서 고백하게 된다.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친다음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아직도 땅 내 마음 속에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 존전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계신 권사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이다. 이 땅에 살면서 정을 나누고 살았던 것이 헤어져서 슬픔과 아픔을 주지만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해내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회)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여름이 막바지가 되어가면 서 학교마다 새학기를 시작한다. 우리 두 딸들도 새로운 학...

했다니, 두 딸의 행동이 엇갈린다. 한 아이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알려진 물건들을 모두 다 카트에...

보니, 당연하게도 한 딸아이의 것이 다른 아이의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 두 딸 중에 누가 내 눈에 더 예뻐할까?

사계 만들기 위함이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도 단지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만이...

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내 딸의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wmclakim@gmail.com



릴리 안식년 장학금 프로그램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릴리 안식년 장학금 프로그램 설명회

지친 목회자들에게 쉽고 재충전의 기회 제공

KAPC가주노회(노회장 임영진 목사), 남가주노회(노회장 양경선 목사),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이대영 목사)가 공동 주최한 '릴리 안식년 장학금 프로그램 설명회'가 24일(목) 오전 10시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열렸다.

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그로인해 자신이 회중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장학금 수혜자 강인국 목사(미시시피한인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단애 올라 "장학금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귀한 여행을 다녀왔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 사역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릴리 재단의 목회자 안식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강목사는 "목회자 안식년 프로그램이란, 목회자가 잠시 사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휴식과 함께 열정과 창의성을 회복케 하고 자...

본 장학금 신청 공고는 항상 11월에 뜨고 접수마감은 다음 해 4월 말까지이며 필요한 행정 서류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본 장학금은 6만불. 안식년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12개월을 할 수 있으며 일회성으로 3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고 2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 여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목회자 안식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릴리 재단 창시자는 1876년 릴리 제약회사를 설립했고 1937년 Lilly Endowment 자선단체를 설립했으며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시작되어 그 지역 목회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전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성자 기자)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 기도회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제35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기도회 개최

"어떤 시작도 기도의 시작보다 중요한 시작은 없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8월 20일(주일) 오후 4시 미국 시애틀를례교회(권준 목사)에서 제35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기도회를 세기총 임원들...

과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엡1:10)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와 시애틀를례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준비위원장 최빅토리아 목사(세기총 법인이사)의...



이어서 대한감리회 이규학 감독의 "영웅 이승만, 전민정 대표의 "제주 4.3 이것이 진실이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의 "이승만과 한미동맹" 강연이 있은 후, 최희량 회장의 내빈소개,

문무일 분국 사무총장의 기념관 건립추진 설명, 김성옥 사무총장의 광고, 한미연합 김영구 회장의 만세삼창, 해병대 전우회 박요한 회장의 만찬기도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환영사, 대회장 전기현 장로(대표회장)의 대회사, 이상진 장로(KIMNET 공동대표)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최빅토리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기총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준 목사(시애틀를례교회 담임)는 "돌파(Breakthrough)를 위한 기도"(단 9장 1-10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목사는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라면서 "어떤 시작도 기도의 시작보다 중요한 시작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회장 김관중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 시간이 진행됐으며 김다영 목사(말씀수양관 관장)가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최병걸 목사(KIMNET 이사, 갈보리교회 담임)가 '세계 복음화와 한인교회를 위해', 정장길 목사(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 담임)가 '북한 동포들과 전쟁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이상훈 목사(튀르키예 선교사)가 '3만 한인 선교사와 750만 재의 동포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으며 최일식 목사(KIMNET, GAMNET 상임대표)가 격려사를, 김경식 목사(GSM 국제대표)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양복 목사(시애틀를례교회 부회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기사제공: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churches: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느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 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9월5일(화)부터 9월7일(목)까지 장성철 목사(보스톤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Transform Reform+Perform"라는 주제로 개강 부흥회를 개최한다.

▲문의: 718-463-7163

퀸즈한인교회, '가을 가족 페스티벌'

퀸즈한인교회(담임목사 김 바나바)는 9월16일 오후 3시 교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가을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물농장,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게임, 에어 바운스, 푸드코트, 페이스 페인팅, 가족 사진관 등이 마련된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참가자들은 M60, Q33, Q72, Q48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718-672-1150

뉴욕만백성교회, 어머니 문화교실 참가자 모집

뉴욕만백성교회(담임 이종범 목사)는 어머니 문화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14주 동안 '여성(어머니)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여성이 살아야 나라(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쿨렐레를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125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이다.

▲문의: 718-701-4953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가을학기 유아원 개강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9월11일부터 12월14일 (월~목)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가을학기 유아원을 개강한다. 대상은 18개월부터 3전까지이다.

▲문의: 718-229-0858

2023 PG KIDS 성탄뮤지컬 Audition

미셔널 어린이 뮤지컬팀 PG KIDS에서 2023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한 어린이 & 어른 배우를 모집한다. 뮤지컬 제목은 Christmas Story이며 공연일은 12월9일(토)이다. 연습은 9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매주 목,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다.

▲문의: support@praisegroundkids.com

필그림선교교회, 방과후 학교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는 9월5일(화)부터 2023-2024 새학기 필그림 방과후 학교를 모집한다. 대상은 K-7th grade이며 교과는 학업지도, 신앙교육, Extracurricular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학교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임효준 목사 (afterschool@njpmc.org)

[MD] 메릴랜드 볼티모어 아버지학교 19기 개설

메릴랜드 볼티모어 아버지학교는 9월23부터 10월1일까지 (토,주일) 2주간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8971Chapel Ave. EllicottCity, MD21043)에서 개설한다.

▲문의: 고경훈 성도 703-678-9996

[VA]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메시아평생교육원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9월6일(수)부터 12월6일(수)까지 14주 동안 매주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메시아 평생교육원을 개강한다. 교육방법은 34개 과목의 현장 강의 및 4개 과목의 온라인 화상 강의(Zoom)로 진행된다. 등록자격은 55세 이상 워싱턴 지역의 수강 희망자이며 등록금은 60불+점심(30불)이다. 등록마감은 9월6일(수)까지이다. www.mpcow.org 에서 가을학기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이규혁 목사 703-678-1183



감신 동문의 밤 포스터

감리교 신학대학 개교 136주년 기념집회

미동부 감신인의 밤 & 포럼, 평신도 연합성회 개최

1887년 시작된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동부 감신 총동문회는 개교 136주년을 맞아 미동부 및 한국 총동문회, 지역 감리교 목회자, 성도들을 초청하여 9월 12일(화) 오후 6시, 13일(수) 오전 10시-12시, 뉴저지 포트 리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감신인의 밤 & 메도디스트 포럼을 개최한다.

미 동부지역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재웅 목사)가 주관하는 9월 12일 오후 6시 감신인의 밤 행사에는 동북부 감리교 원로목사회, 한국 총동문회, UMC 연합감리회

역사 보존위원회원들, 아펜젤러선교사 후손들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및 감리교신학대학교 기숙사 장천생활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메도디스트 포럼을 진행한다.

이어 13일 저녁 7시에는 뉴저지 갈보리 연합감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에서 미주 하디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덕주교수를 강사로 평신도 연합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월례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회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10월 초 콜럼비아 단기선교 예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8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열었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김인한 장로가 기도한 후, 유상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판

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린도 전서 4: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좌절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친히 판단하시도록 마지막까지 주께 충성하자"고 설교했다. 이어 한준희 목사의 인도로 기아대책, 105명의 결연아동과 후원자, 해외아동결연 및 후원선교사역으로 관계된 협력 선교사 -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연,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장희성 유한나 선교사-산티아고),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박광우 고혜영 선교사-블랑게와사), 에콰도르(이철희, 정영경 선교사), 잠비아(온돌라센터, 임동선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권캐더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10월2일 출발해서 7일 뉴욕에 귀환하는 콜롬비아 단기선교 일정과 참가자들을 알리고, 단기선교 참석을 독려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제 36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사진 촬영했다

제 36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인생의 끝을 알고 달려가는 준비된 삶을 살자"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는 8월28일(월) 오후 7시 30분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에서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6기 개강예배를 열었다.

제 36기 뉴욕실버미션학교는 8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주간 진행되며 이 단기선교는 11월6일부터 11일까지 니카라과로 갈 예정이다.

김경열 목사(훈원원장) 인도로 시작된 제 36기 개강예배는 기도 박현영 목사(이사), 찬양 뉴욕실버미션합창단, 설교 김성기 목사(이사), 헌금특송 임관순 형제, 헌금기도 황규복 장로(이사 회계), 실버영상홍보, 환영인사 이지용 목사(이사 서기), 축사 노재화 목사(이사), 축가 NY 팬폴렛 찬양선교단, 광고 이형근 장로(이사 사무총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기 목사(뉴욕교회, 이사)는 "마지막 경주 (딤후 4:1-8)"라는 제목을 통하여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전파의 경주,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경주를 힘차게 달려왔다"며 "바울처럼 인생의 끝을 알고 달려가는 준비된 삶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항상 힘쓰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 은퇴 이후는 인생의 황금기이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용 목사는 "36기를 환영하며 10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생애 당당히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같이 힘쓰자"고 외쳤다.

노재화 목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석양에 지는 노을도 아름답다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실버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의 주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됨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최윤섭 목사(이사 선교원장) 축도로 마쳤다. 뉴욕 실버(시니어) 미션에 관한 문의는 김경열 목사(917-963-9356), 이형근 장로(646-220-8222)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연합 여성성경학교 참가 학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뉴저지 8개 교회, VBS 연합 여성성경학교 개최 "Twist & Turn" 주제로 30명 학생 참가

러브 뉴저지(Love NJ)가 주최한 어린이 연합 여성성경학교(VBS)가 8월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펠릭 뉴저지 소재 유영교회에서 열렸다. 소형교회를 돕는 사역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하여 섬기고 있는 에제르 미니스트리(Ezer Ministry) 스템들과 개교회의 봉사자들 15명이 8개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30명을 섬겼다.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연합 여성성경학교는 "Twist & Turn"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이번 여성성경학교에 연합하여 참가한 교회는 갈보리순복음교회, 수정교회, 새언약교회, 시나브로교회, 언덕위의교회, 유영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잉글우드 구세군교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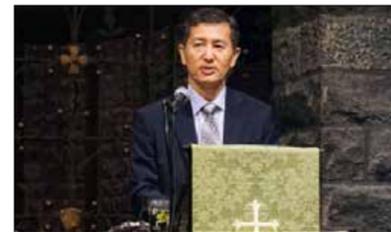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평강교회, 특별부흥집회 개최

강사 김영주 목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뉴욕평강교회(담임 이종태 목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요한복음 11:44)"을 주제로 8월 25일(금) 저녁부터 28일(주일)까지 김영주 목사(한국전주 기쁨넘치는교회 담임, 목회자 컨퍼런스 '치유케 하는 삶' 강사)를 강사로 특별부흥집회를 열었다.

김영주 목사는 "이번 집회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심리적, 감정적 무



김영주 목사가 특별부흥집회 중 말씀을 전하고 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 | |
|---|--|
|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org/kor/index.php</p> |
|---|--|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초청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초청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성료 “예수 안에서 자유와 행복한 인생을 살자”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제2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가 8월23일(수) 집회를 끝으로 성료됐다. 23일(수) 오전 5시30분 갈보리 선교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 사회로 시작된 마지막 기도회는, 다니엘 정장로(은혜한인교회) 기도, 김창달 장로(남가주동신교회)가 특별연주했다. 이날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OC교회이사장)는 “21명의 귀한 목회자들이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 소망을 보게 된다”며 “이 지역에 대 부흥이 일어나기보다 심령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잘 섬겼으면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김성식 목사(백송교회)가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의 균형(갈2: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식 목사는 “균형은 고른 상태를 의미한다. 균형을 잡으면 대립이 없으며 아름답고, 균형은 아름다

움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균형의 역사이고 조화를 이루면 빛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는 자아는 철저히 절망해야 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아는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게 된다”며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 십자가 소망이 빠진 절망의 자아는 영적 무기력에 빠질 뿐이고 오만으로 점철된 자기의 바벨탑을 쌓을 뿐이다. 오직 십자가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자유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심상은 목사가 이번 집회에 감사로 참석한 21명의 목사를 위해,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위해(교회, 학교, 정치인들)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이번 기도회에 감사로 참석한 21명의 목사들이 결단의 찬송을 불렀다. 이날 기도회는 신원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차 3050 차세대 목회자세미나 “우리를 통해 천국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충분”

제2차 3050 차세대 목회자세미나가 24일(목)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OC교회, OC장로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의 사회와 이원순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목회자세미나 대회장)가 감사로 나서 강의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잠 16:9)’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목회자세미나 대회장)가 감사로 나서 강의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잠 16:9)’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노창수 목사는 “목회를 하다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 어려운 시간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으며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지 깨닫게 되며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내 마음속 중심의 동기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주님이 잘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무엇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합한 목회자를 잡아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용 목사가 ‘기본을 점검해야 합니다(엡

4:11-16)’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종용 목사는 자신이 가수 시절부터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다. 이 목사는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라 강조했다. 그는 “목회를 할 때 주변에 있는 대형교회를 바라보아도 안 되고 대형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식을 따라가서도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듯이 교회들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처럼 되려고 해서 힘이 들게 된다. 그리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낚고 다른 것을 해서 힘이 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보람이 있지만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이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천국이 전파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번째 강의를 ‘균형 잡힌 목회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민종기 목사가 강의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행복목회와 성령충만(엡 5:18-21)’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차 3050 차세대 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3차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프트 상담연구원, '샬렘, 전인적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샬렘 전인적 리더십, 샬렘 PK사역도 계획

GIFT for Community(비영리 단체, 대표 Drs. Joseph(의사) & Lydia Chun (공인 심리학 박사)에서 주최한 제3차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열렸다. 현재 목회하고 있는 현역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참가정원이 한 달 전에 마감되기도 했는데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총 80여 명이 3일 동안 전인적 리더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배움과 동시에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웃고, 나누고, 기도하고, 힐링 받고, 힘을 얻고 재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GIFT FOR COMMUNITY에서는 매년 “샬렘, 전인적리더

십”을 계획 중이며, 더 나아가서 목회자/사모님들 뿐 아니라 목회자 자녀분들을 위한 “샬렘 PK”도 계획하고 있다. 샬렘은 남을 돌보노라 본인 자신은 돌봄을 잘 받지 못하기도 하는 목회자/사모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경비와 식사를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하며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김 후원과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미나를 인도한 전달훈 박사과 리더십 전 박사는 GIFT의 공동 설립자들로 전달훈 박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이면서, 오렌지카운티에서 30여 년 동안 의술을 베풀고 있다. 또 리더십 전 박사는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이며, GIFT 전문상담소 원장을 맡고 있다. (기사제공: 기프트 상담연구원)

서부교계 게시판

조세핀 하버드대학 교수 초청세미나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상하 목사)는 조세핀 하버드대학 교수 초청세미나를 9월2일(토)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503)531-8444

제1회 시니어 음악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미주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시니어음악회가 9일(토) 오후 1시30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7080 KSA라이브밴드 공연이 있게된다. ▲ 문의: (213)703-4979, 2568

LA기쁨의교회 설립14주년 감사예배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설립14주년 감사예배가 9월 10일(주일) 오전 8시와 10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351-9975

CTS 미션과이어 초청 찬양콘서트

나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는 CTS 미션과이어 초청 찬양 콘서트를 9월6일(수)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626)444-0058

인랜드교회 힐링콘서트 찬양간증집회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는 힐링콘서트 찬양간증집회를 ‘우리, 하나되는 밤’이라는 주제로 16일(토) 오후 5시 본교회 EM 예배실에서 갖는다. 이날 집회는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야곱의 축복 등 작사작곡)가 감사로 나서 찬양과 말씀을 전하게 된다. ▲ 문의: (909)622-2324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를 소개하는 스텝들

제19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 열린다

제19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가 오는 9월9일(토)과 10일(주일) 양일간 샌프란시스코 Bay Area 플레즌튼에 위치한 Rock Bible Church(담임 Scott Berglin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선교대회는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시 96:3)’가 주제이며, ‘복음 안에서의 진리와 공의(롬 12:2)’가 부제로, 샌프란시스코, East-Bay, North-Bay, 산호세 지역, 남가주의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교회를 포함, 이스라엘(Messianic Jewish), 이란, 타이완, 아랍 교회(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예멘,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레바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인도, 파키스탄,

태국, 라오스, 홍콩, 에티오피아, 페루, 아마존 정글 지역 등 35여 민족을 대상으로 미 주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해 선교 패널, 메시지, 찬양, 각 나라 민족의 선교 보고, 선교 부스 전시 등으로 대회를 갖는다. 금년도 패널은 정윤명 대회장 목사의 사회로 복음적 교회들의 목회자와 선교사들로 구성된 패널리스트들이 토의 하며 특히 지구촌에서 핍박받고, 자유의 위협을 받는 국가의 교회를 위하여, 미국교회가 하여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사명도 함께 논의된다. 자세한 것은 Paulchung0214@gmail.com, 925-639-952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글로벌 국제선교)



폴 아트 리 개인전이 bG갤러리에서 열렸다

폴아트 리 제8회 개인전

미술작가인 폴 아트 리 목사는 제8회 개인전이 'Light of Life'라는 주제로 8월25일(토)부터 9월1일까지 bG갤러리에서 열렸다. 폴 아트 리 목사는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의 빛”이라며 “작품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그 안에서 열리는 삶의 현장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천국의 문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제 작품을 통해 무지개는 연약의 무지개였는데 작품을 보러 온 자들 중에 LGBTQ계열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생각하고 매우 좋아해서 이 무지개는 당신들을 상징하는

여섯 색깔 무지개가 아닌 연약을 상징하는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말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시니 죄에서 용서를 받기 바란다라는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제 그림에서 힐링과 평화행복감이 있는거 같다. 저의 작품을 감상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자살하기 전 제 작품을 보고 죽으려다가 자살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시전 제3연합시집 출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시전 제3연합시집 출판 감사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시인”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시인)은 제3연합시집 <하프타며 새 노래> 출판 감사예배를 27일(주일) 오후 4시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에서 열었다. 이인미 시인은 “하프타며 새노래 라는 제목은 우리의 결단이다. 문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며 14년을 걸어왔다. 인본주의 문학과 하나님의 문학 간 영적전쟁을 체험한다. 시에도 올라가니 있다는 마음을 평했다. 어떠한 문학적 잣대의 질문으로도 시전의 시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고 믿으며 그 믿음이 시전의 자부심”이라 말했다. 그는 “시와 찬미의 전당은 우리 자신이 성전 이듯이 우리 자신이 시와 찬미의 전당이라는 뜻으로 시전을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시인이다”라고 말했다. 정한나 사모 사회와 정종원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한 출판 감사예배는 신병욱 목사(미라클 LA교회 담임)가 ‘이슬과 영생(시 133: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병욱 목사는 “이번에 출판된 시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과 같으며 그런 의미에서 153편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며 “연합에 대한 정신을 나누고 싶다. 본문에서 시인이 연합에 대해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 시적

메타포는 연합의 의미를 혈문의 이슬로 비유했다. 연합의 의미를 이슬이라는 시적 메타포로 사용했다. 연합이 이슬과 같은 생명을 풍성히 하고 생명을 바라보게 한다.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흘려보내는 시인들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연합이 계속되기 바라며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명 총장이 축사했으며 백승철 목사(시인, 사모하는 교회 담임, 문학평론가)가 격려사를, 송용구 교수(시인, 문학평론가, 교대 독문과 교수)의 축하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2부 시낭송 시간은 장애리 동인, 김은집 시인, 이예미 시인, 조미나 시인, 김선아 동인, 김지연 동인, 윤일흠 시인, 안중미 시인, 이영숙 시인, 최명희 시인, 김한필 동인, 정한나 동인, 이미선 동인이 시낭송을 했으며 정종원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이인미 시인이 시낭송을 한 뒤 감사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정우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자들은 이전 대회보다 2배 이상 많은 4500여명이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은 자리에 앉아 기도도 집회를 준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찬양단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개회사에서 “이곳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120년 전 하디 선교사와 같다. 여러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 문구인 포스(PHOS)를 한 글자씩 나눠 임재(Presence) 거룩(Holiness) 선교(Overflow) 파송(Sending) 4부 순서로 진행했다. 각 주제에 맞춘 찬양이 먼저 행해졌다. 거룩의 시간엔 ‘이 시간 너의 마음 속에’와 같은 잔잔한 찬양이, 파송의 시간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와 같은 장엄하고 경쾌한 찬양이 이어졌다. 찬양 후 주요 연사들이 나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박동찬(일산광림교회) 흥민기(라이트하우스) 목사는 각각 애즈버리 부흥과 삶의 간증을 제시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청년이어 일어나라”

장충체육관서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열려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장충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에서 주관하는 초교파 청년 연합집회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원산과 평양 부흥운동 등을 이끈 로버트 하디(1865~1949) 선교사의 영적각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대회

의 주제는 ‘빛’(PHOS THE LIGHT).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성령의 빛을 선사해 신앙 회복과 부흥을 목표로 한다. 초교파 연합집회이다 보니 지역교회의 청년공동체부터 캠퍼스 선교단체, 심지어 군인교회 교인들도 눈에 띄었다. 연령층도 다양했다.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참석한 어린아이, 백발의 노인들도 있었다. 참가



팬데믹 후 선교 대안으로 주목받는 ‘BAM’

이다니엘 IBA 사무총장 “세상의 아픔에 응답하길”

“코로나 팬데믹 후 특히 해외 선교 현장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로는 선교지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죠. 결국 비즈니스 선교가 중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다니엘 IBA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비즈니스선교연합체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가 25일부터 이

틀간 개최하는 ‘IBA 서울콘퍼런스 2023’을 기획한 이 사무총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으로 실제적 변화를 이룰 크리스천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전에 비해 사역 결과보다 사역자의 생활 방식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 선교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는 결과 중심적 선교를 하다 보니 세상의 실제적 아픔과 필요에 응답하지 못한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IBA 메시지가 최근 복음화율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사무총장은 “IBA가 비즈니스 선교의 과정, 생활 방식, 변혁 가치를 추구하는데 한국 상황에도 잘 맞는 것 같다”며 “비즈니스 관련해 미션 강의를 하면 가장 젊은 그룹이 가장 반응한다.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와의 소통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IBA는 2004년 로잔운동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BAM(Business As Mission·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운동의 흐름에 따라 2007년 설립됐다. 경제·환경·정치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어지고 결핍된 사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교육 포럼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창조세계를 돌보고 사회 약자를 세우는 다양한 사역 사례를 접한 참석자들이 이곳에서 ‘게임 체인저’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성교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다음세대 양육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영국과 독일에서도 ‘어나더레벨’을 개최했다. ‘어나더레벨 인 런던’의 경우 재영한인교회연합회 소속 48개 교회가 공동 주관해 런던 열방교회(박종범 목사)에서 진행했다. 독일에서는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브레멘 힐링센터에서 김 대표가 강사로 나서 현지 청년을 대상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했다.

독일 BM(Bridge Ministries) 캠프에서 현지 사역을 주관한 백종석 이룸교회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복음적 성 가치관 교육의 탁월한 전문성, 담대함과 헌신의 정신을 전한 이 시대의 국제적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영국 세미나에 참석한 김 소령씨는 “단순한 성 지식 전달에 치우친 기존의 성교육과 달리 성경적 성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소감을 밝혔다.



은혜 받고 문화생활까지... “뇌병변 장애인만 오세요”

왕성교회 지체·뇌병변 장애인 하계 수련회

악을 쓰는 모습이었다. 참석자들은 더딘 목소리로 끝까지 성경 말씀을 봉독했다. 모두 지체·뇌병변 장애인이었다. 교회 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소감을 밝혔다.

었다.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에 몸을 의지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5여명이 26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길요나 목사) 왕성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을 찾았다. 교회 일일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수련회 주제를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민 21:8)로 정했다. 영적 회복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취지다.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이는 얼굴을 꼭 숙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설교 메시지에 공감했다.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성도는 박수 대신 눈을 질끈 감고 찬양했다. 축도 이후 기도회가 진행됐다. 맨 뒷자리에서 PPT 화면을 넘기고 있던 한 교인이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뒤뚱뒤뚱 앞으로 걸어갔다. 뇌병변 장애인 김세광(49) 집사였다.

김 집사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기도 인도를 이어갔다. 그는 뇌경색 뇌출혈 부정맥 등을 앓고 있는 교인들 이름을 거론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띄엄띄엄 알아챌 수 있었다. 장애인 비장애인 30여명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여 삼창까지 외쳤다. 점심 식사로 보쌈 도시락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커피까지 마시고 걸어서 5분 거리의 영화관으로 향했다. 평소 여가활동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들 사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가을에 수련회를 또 갖는다. 오는 10월 8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교회로 1박2일 수련회를 간다. 당초 2박3일 수련회를 기획했으나 교통비 등 예산 문제로 기간을 조정했다고 한다.

이 교회는 1995년부터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장애인 성도 70여명이 출석 중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 20여명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외 발달장애인들은 연령별로 모여 본관에서 따로 예배한다.

성혁명 막자... 中·英·獨으로 뻗어간 ‘성경적 성교육’

성교육 세미나 ‘어나더레벨’ 하나님에 기뻐하는 성 가치관 알려

한국의 성 가치관을 제시하는 보건·교육단체가 해외에서 ‘성경적 성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아우르는 재외 한인 교포들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

재우한인연합회, 동관한인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에이랩아카데미의 ‘어나더레벨 인 광주’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지연 대표는 현지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교육 아카데미와 세미나 강사로 나서 현지 한인에게 다음세대 성교육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가치관’ ‘성 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자제’ ‘성 혁명을 막아서는 양육자 실천법 12가지’ 등이다.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r.D)

1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금) 오전 국제신학교 (이사장 김영준 목사) 010-9260-1091
1(금) 오후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대표장 하인금 목사) 010-4466-0545

1(금)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토) 오전(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정책위원 Conference 장소: 본부(남서울중앙교회6층)
3(주) 오후 서울 예수기독교교회 (김효진 목사) 010-3700-3761

4(월)~5(화) 일본 (JAPAN) 오사카 중앙교회 Center, GoodTV 부흥사회 해외 Conference
주최: GoodTV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임용희 목사) 010-7291-0291
6(수)~7(목) 일본 (JAPAN) 오사카 Discipling, group M.T
7(목) 일본 (JAPAN) 간사지방 Discipling, group M.T

8(금) 정오 시카고 성회 준비모임,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B-1
9(토) 오후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10(주)저녁~13(수) 세계여성지도자 제1회 제주컨퍼런스 (대표고문 장성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4(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모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사무총장 이강복 목사) 010-4734-7100 장소: HW Convention Center (하림각)
14(목)~15(금)대구 햇빛연예인교회 (정해영 목사) 010-8014-8121
15(금) 저녁 서울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제 233차 해외성회 (233rd Overseas Assembly) 주최: 韓美 부흥사업
韓美 연합부흥가사단(대표총재 피종진목사, 대표회장 이귀범목사, 동유럽 영적각성특별성회) 010-2238-3999

18(월)~20(수) 헝가리 (Hungary) 고평촌 (유럽 영적각성센터 신은규 선교사)
주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1(목)~22(금) 독일(German) 체코(Czech)
23(토)~24(주) 오스트리아 (Austria)
25(월)~26(화) 체코(Czech)
27(수)~28(목) 슬로바키아 (Slovakia)
29(금)~30(토) 유럽 기독교성지 탐방

30(토) 저녁 서울 Maranatha 신학대학원 대학교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낙태 가능성 열어둔 보호출산제, “생명존중” 원인과 달라

국회 상임위 통과한 ‘보호출산제’ 환영만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위기 임신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육에 티’가 있다고 한 그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강간·근친상간 임신 등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허

용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보호출산제에 삽입했다”며 “이로 인해 위기 임신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될까 염려된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지는 원안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립자 영아’ 사건을 계기로 출산 사각지대 영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된 가운데, 교계는 출산 통보제뿐 아니라 보호출산제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본보 7월 11일 33면 참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되,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및 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 | | | |
|----------|-------|------|-------|
| 미국 | \$100 | 유럽 | \$240 |
| 캐나다 | \$130 | 남미 | \$240 |
| 한국/동남아시아 | \$240 | 아프리카 | \$240 |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22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중화권 선교를 위한 항공모함 격인 대만

중화권 인구는 약 15억이다. 이는 80억 세계 인구의 1/5에 육박한다. 현재 세계 속에서 인구수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화권의 힘은 서구권과 대비될 정도로 막강하다. 하지만 복음화율은 7% 미만이다. 절대다수인 14억 정도가 비기독교(Non-Christian)인이다. 따라서 중화권 사역이 없는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도 요원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중화권 선교를 향한 항공모함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항공모함은 바다에 떠다니는 해상 기지로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대만은 중국을 마주하고 있다. 7천만 화교권의 중심이다. 세계교회는 대만 기독교가 부흥하여 선교적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만의 일반적 현황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150km 떨어져 있다. Worldometer 자료에 의하면 그 면적은 남한의 1/3 격인 35,410km²이다. 전체 면적의 64%가 산지이다. 인구는 2022년 10/11일, 국제 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대만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5,510로서 일본과 한국을 제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종교 실태는 불교 35%, 도교 33%, 기독교(천주교 포함) 6.3%, 토속 종교, 무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열이며 2%가 여러 소수민족들이다. 한족 중 84%는 명·청 시기부터 이주해 도착화된 대만인(臺灣人, 내성인 內省人)이고, 14%는 1949년을 전후해서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주해 온 대륙인(大陸人, 외성인 外省人)이다. 소수계 2%는 원주민,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기타 등이다. 공용어는 국어(國語: 만다린어)이다. 이밖에 대

대만의 일반 역사

대만의 역사는 크게 7단계로 구분한다. 1) 선사시대이다. 이때에는 대만에 원주민들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말레이-인도네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추정된다. 대만 내의 약 500여 곳에서 선사 유적지의 출토물이 발견되었다. 2)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1624~1662)로서 38년간이다. 1624년 네덜

시기(1895~1945)로서 50년간이다. 일본은 대만을 일본 본토에 대한 식량 공급기지 및 공산품의 소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폈다. 6) 중국국민당 시기(1949~1995)로서 46년간이다. 1949년 5월, 당시 국민당은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30만 명의 군대를 진주시켰다. 같은 해 12월,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7) 민주화 시기(1996~현재)로서 27년간이다. 1996년 3월 23일에는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가 시행(리덩후이 재선)되었다. 이로써 대만은 중국국민당 일당독재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대만을 불안케 하는 3요소

먼저 영적인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섬에는 악령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만도 예외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지겨진다. 대만인 다수는 이때 구전에서 떠돌고 있던 영혼이 지하세계로

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당 세력은 마인주 대만 전임 총통이 제시한 3불(不統, 不獨, 不武) 즉,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독립을 시도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지지한다. 정치적인 갈등과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인 측면이다. 자유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쾌락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도박, 마약, 음란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람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 속에 전통사상을 거부하며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만 선교의 나아갈 방향

첫째는 2,400만 명의 영혼 구원이다. 대만은 절대다수인 93.7%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만 선교가 중국 선교를 위해 가교 역할 가능만 한다면 문제가 크다. 대만 선교의 1차적 책무는 그

다.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교회가 도식적 방법만을 고집할 경우 청소년들은 교회에 발을 붙이기 어렵다.

맺음 말

대만은 비록 작은 섬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곳이다.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나아가 풍부한 자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아름다운 섬(Formosa)이라 불렀다.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외딴 섬이기에 악령들도 가만히 있을 않았다. 전전후로 영혼들을 포획해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 선교사 맥스웰(馬雅各, Dr. James L. Maxwell)은 더글라스 목사와 함께 1865년 영국 장로회 파송을 받아 대만 까오장에 도착했다. 그는 미신이 많고 교육 수준이 뒤떨어진 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맥스웰을 대만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부른다. 대만 북부에서

중화권은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대만은 중화권 선교를 위한 교두보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대만교회가 중화권 복음화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만어(台語)와 객가어라 하는 방언과 원주민이 사용하는 대만 제어가 있다. 국가 제도는 입헌 공화국이고 국회는 일원제이다. 국가원수는 총통(總統)이며 임기는 4년 연임제이다. 산업구조는 97.7%가 중소기업으로서 가족 경영체제와 화교상권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한다. 2022년 10/11일, 국제 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대만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5,510로서 일본과 한국을 제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종교 실태는 불교 35%, 도교 33%, 기독교(천주교 포함) 6.3%, 토속 종교, 무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만 남부에 소규모 거주지를 건설하였다. 1642년부터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만을 직접 관할하고 총통을 임명하여 토착민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였다. 3) 정성공(鄭成功) 시기(1662~1683)로서 21년간이다. 그는 대만에서 네덜란드 군대를 몰아내고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위한 거점을 구축했다. 그와 아들 정경(鄭經)은 대만에서 유교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식 관습과 문화를 이식하였다. 4) 반청 시기(1683~1895)로서 212년간이다. 청(淸)나라는 1683년 군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점령하였다. 1822년에는 대만을 청나라의 22번째 성(省)으로 편입시켰다. 5) 일본 식민지

돌아가기도 하며, 지하세계의 영혼이 이승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때에는 결혼식이나 개업식 등을 피한다. 주택매매나 이사도 하지 않는다. 운전도 평상시보다 조심한다. 사람들은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 종이돈을 사 태운다. 귀신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크리스천마저도 악령의 세력에 놀려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인 측면이다. 중국은 대만과 완전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반할 경우 수시로 위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 집권세력인 민진당은 독립을 지향하나 힘의 균형상 어쩔 수 없이 현 체제 유지가 차선책이라고 여기

땅의 백성들을 죄와 악령의 그늘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대만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만 할 경우 선교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둘째는 대만교회가 선교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중화권 선교를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대만교회이다. 외국인인 언어와 문화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저들이 동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중화권 선교에 올인 하도록 부추리며 일으켜 세워야 한다. 셋째는 선교를 위한 문서와 영상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훈련된 전도자들이 많아 해도 사역을 위한 좋은 기자재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현대는 영상시대의

는 1872년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마제(馬偕, Rev. George Leslie Mackay)가 헌신했다. 그는 병원을 세웠으며 설교, 교육, 의술 등 많은 분야에 공을 세웠다. 이처럼 초창기 선교사 이후 150년이 흘렀다. 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복음화율이 낮고 귀신들이 득세하고 있다. 어쩌해야 할까? 대만에서의 영적 싸움은 간단치 않다. 더구나 저들은 15억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 힘만으로는 버겁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그 자세는 섬기려고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9)

C. S. 루이스를 신앙으로 인도한 Chesterton의 작품 소개

C. S. 루이스는 그의 영적 자서전이라 칭하는 “여기저 못한 기쁨”에서 자신의 거듭남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거듭남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작가와 책을 소개했다. 여기서 C. S. 루이스는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와 체스터턴의 “영원한 사람”을 언급했다. 체스터턴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긴 다작의 작가(Prolific Writer)다. 그는 기고문, 시집, 철학, 전기, 판타지와 탐정소설 그리고 200여 편의 단편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체스터턴의 작품은 대략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대개 신문 잡지에 기고했던 예술과 사회를 비평했던 비평들이다. 둘째는 문학작품으로 체스터턴은 시집, 다양한 소설을 쓴 작가로 탁월한 문학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셋째는 신학과 신앙에 관련된 종교 서적들이다. 체스터턴은 다양한 형식의 글들로 신앙을 변증하고 신학

을 풀어 대중들에게 전도하는 탁월한 작가다. 체스터턴은 기독교 변증과 환상소설 그리고 추리소설에도 탁월한 실력을 보였던 작가다. 그의 환상소설은 루이스와 톨킨에게 영감을 주었다. 추리소설은 깊은 심리적 통찰과 식견을 보여주는 브라운 신부 시리즈다. 총 52편으로 구성된 브라운 시리즈는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고발하는 수작(秀作)이다. 체스터턴은 이 작품에서 브라운 신부를 등장시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브라운 신부 시리즈는 설록 홈즈 탐정소설에 버금가는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 설록 홈즈의 탐정이 인간 외부에 관한 관찰과 외형적 범인의 흔적을 추적하는 탐정소설이라면 브라운 신부는 인간 내면의 죄성(罪性)에 대한 깊은 통찰 즉, 범인의 내면을 다루는 탐정소설이다. 체스터턴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서는 “영원한 사람”과 “정통”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양질의 기독교 변증서로 인정을 받는다. 체스터턴은 “영원한 사람(Everlasting Man)”을 통해 신앙인의 역사관을 제시했다. 이것을 읽고 루이스는 자신의 무신론적인 입장에 회의하기 시작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에 의하면 체스터턴은 무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기술했던 H.G. 웰즈의 역사적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영원한 사람”을 저술했다고 한다. 웰즈는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역사의 개관》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허점을 발견한 체스터턴은 웰즈의 진화론적 역사관의 허구를 기독교적인 대응으로 “영원한 사람”을 내놓은 것이다. 체스터턴은 “영원한 사람”에서 채치와 워트 그리고 풍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역사관을 제시한다. H. G. 웰즈는 그리스도가 비슷한 신화적 인물들과 나란히 서 있고, 기독교는 유사

종교와 병행하는 종교라고 주장했다. 체스터턴은 이런 주장들이 케케묵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기독교 복음의 유일무이함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진화론적 인간관의 허점을 지적한다. 체스터턴은 박학다식함과 통찰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필치로 기독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체스터턴은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의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와 동서양 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기독교를 변증한 체스터턴의 “영원한 사람”이 C. S. 루이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루이스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로 극찬한 책이다.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서로 인정받는 체스터턴의 또 다른 작품이 “정통(Orthodoxy)”이다. “정통”은 지난 1,500년간의 도서가운데 ‘꼭 읽어야 할 종교 관련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체스터턴의 별명은 역설의 대가다. 체스터턴은 이런 별칭에 걸맞게 상대의 논리를 가져와 뒤집는 방식으로 변증한다. 체스터턴은 자신의 이런 변증법적 전략을 귀류법(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불렀다. 서울여대 장경철 박사는 귀류법을 자기 명제의 반대 명제를 추론한 후 그 명제의 오류를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명제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체스터턴은 <정통>이 교회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붓 가는 대로 써 내려간 일종의 “영적인 자서전(Spiritual Autobiography)”이라고 설명한다. 예세이로 구성된 책이지만 <정통>은 말랑말랑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조지 맥도널드의 작품을 읽다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C. S. 루이스는 작가로서 또 다른 작가 체스터턴을 만났다. 루이스의 생애를 정리한 데빈 브라운은 루이스가 체스터턴을 현대 작가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분별력이 있는 작가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루이스는 위대한 작가 체스터턴의 신앙 변증서 “영원한 사람”을 읽고 기독교 신앙으로 귀향을 재촉했다. 지금은 루이스와 체스터턴이 모두 필요한 시대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월. 세상을 떠날 때 죄인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마1:18-21) 찬 436장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이곳을 떠나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난다. 떠날 때 사람의 신분은 죄인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떠난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현재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속하는가? 나는 영원히 소망이 있

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현재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살 확신함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가?

화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사는가? (마1:22-23) 찬 430장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알지 못

하는 영적 소경이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의식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영적 소경이 너무 많다.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수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섬기는가? (마 2:1-3) 찬 94장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있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권세자다. 나 자신의 왕이 현재 예수님이시며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음을 알고 사는가? 사람은 자신이 각각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일평생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

쁨을 위하여 살고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왕으로 살고 있다. 바로 이 죄 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할지라도 마음에는 자신이 왕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왕께 충성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다.

목 말씀대로 내게 오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가? (마 2:4-11) 찬 428장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성경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신 그 왕을 찾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왕을 알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

고 그들의 마음에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없었다. 결국은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용함을 받은 마귀의 지체들이었다. 오늘날에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모셔야 한다.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고 있는가?

금 나 자신이 섬길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는가? (마 2:16-19) 찬 10장

자신이 왕이기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이 살아 있어서 나 자신이 주인이요 왕이라고 한다. 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생각을 대적하여야 한다. 나 자신을 영원한 왕 아래에 있어야 하는 질서에서 살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과연 왕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자 노력하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왕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고 왕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왕 앞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토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심을 알고 사는가? (마 3:13-17) 찬 18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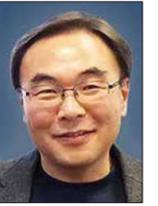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음을 요한에게 보여 주셨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임하

여 계심을 알아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나 자신과 주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질적으로 존재가 다르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며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 (33)

기독교교육과 평가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교회교육 행정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 조직,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정과 성장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가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숫자과약, 문서와 기록 확인, 면담, 사례연구, 분석회의, 설문조사 등등. 대부분의 평가는 일상에서 접촉과 대화와 청취와 녹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가방법들은 크게 양과 질의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두 종류는 비용과 적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적인 평가는 측정과 계수와 수집을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요약하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질적인 평가는 행사나 경험의 과정에 대한 의미와 이해와 느낌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평가의 방법의 선택은 신뢰성(또는 의존가능성, 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뢰성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정도입니다. 같은 방법을 다른 평가자가 사용하더라도, 평가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일관적인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당성은 방법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측정했는지를 말합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상황에 적합한 것, 즉 평가방법이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평가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보다 바른 질문과 참여자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며, 교회가 사용하기에 용이한 평가방법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찰은 질적 평가를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 중에 학생들이 질문하고 발표하는 횟수를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위한 방법으로서 단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의 방법은 사역보다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를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관찰은 단체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묘사함으로써 보고서를 읽은 사람이 그 단체의 경험에 동참하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비록 단기간의 관찰이라 할지라도 경험과 통찰력을 강조하는 풍부한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찰의 방법은 관찰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관찰자가 노출되지 않는 관찰입니다. 참여자들이 관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염두에 두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라 하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참여자의 활동에 동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참여자들을 관찰합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관찰자를 활용하는 방법입

니다. 참여자들이 관찰자를 알고, 관찰자는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관찰을 진행합니다. 이때 참여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중립적입니다. 다음은 관찰자가 참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참여자들이 관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찰자가 중립적인 제삼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친구와 동료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잠복 관찰의 방법입니다. 관찰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자들과 똑같이 활동하며 관찰을 실시합니다.

관찰에 있어 건물이나 공간의 구조, 시설과 장비, 구성원들의 특성과 역할, 활동의 목적과 내용과 기간, 진행의 순서와 방법, 분위기, 등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참여하는가? 발표는 누가하는가?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무슨 대화가 오가는가? 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여자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등등. 관찰한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찰자의 느낌과 반응도 데이터의 일부이므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가를 통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가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관찰은 교회가 사용하기에 용이한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관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관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찰자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관찰 후에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기록을 토대로 교정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적인 계획과 조직과 실행과 평가의 행정과정을 통해 교회의 교육사역이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회중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을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계획, 조직, 실행, 그리고 평가의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첫번째 단계 후에 두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 후에 세번째 단계 등등, 순서에 따라 진행될 때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평가는 교육행정의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매 단계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과정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숙지하면 교회가 사명달성을 위해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코 편지

멕시코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입니다. 1974년 8월에는 제 신앙에 큰 획을 그었던 '엑스플로 74' 전도대회에 참석했고, 4년 후 7월과 8월에는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8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한국에서 상하(常夏)의 나라 도미니카 선교사로 보내셨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 선교만 20년째입니다. 되돌아보면 도미니카에서는 수업료를 많이 냈고, 지금 멕시코에서는 감사헌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감사히 멕시코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어떻게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고,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재활원과 여러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예수] 영화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영화들을 상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본 기독교 영화들이 저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자리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멕시코에서만 800여 회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 정말 좋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듣고 중미에도 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니(?) '캐러밴'이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지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중미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한 여기 티화나까지 올라와서 - 물론 저들의 목표는 미국 입국이지만- 저는 저들의 임시 텐트촌에 가서도 영화 상영을 했었고, 지금의 다른 커다란 거처에 가서도 가끔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무리를 지어 올라오는 것은 달하나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Cabo & Hermosillo 교도소 영화 상영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뭐 이런 말이 있지요. Covid 이후 오랫동안 노크해온 Cabo 교도소와 Hermosillo 교도소에서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와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지만 다녀왔습니다. Cabo 교도소에서 3회, Hermosillo 교도소에서는 2회의 영화 상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곳은 가급적 여름철은 피하고 겨울철에 방문하면 조금 나은 텐데 언제 또 가능할지 몰라 조금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건축 사역

코로나 이후에는 건축이 중단된 교회, 중추가 필요한 교회의 건축을 도왔거나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있지만, 아이들 교실이 없는 교회의 아이들 교실 공사도 했고, 몇 교회의 의자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열악한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화장실 공사도 이상하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도소 담요 필요

멕시코의 교도소마다 수천 명씩의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나 멕시코 정부에서는 담요는 물론 생필품도 거의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겨울철에 한인 교회들의 후원으로 멕시코 여러 교도소에 담요 들여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여 주는 담요들은 그들이 1년 내내 깔고 덮고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거의 낡아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철에는 사랑의 담요를 넣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교도소들에서 더욱 활발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기를 & 겨울철 담요 넣어주는 일이 잘 진행되기를
2. 재활원들에서의 영화 상영을 통하여 많은 형제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3. 아직도 중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밴들 거처에서 영화 상영이 계속될 수 있기를
4. "생명의 샘 (Fuente de Vida)"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기를
5. 교회가 필요한 제2의 쓰레기장 마을에 교회 터가 확보되고, 건축비가 마련되기를
6. 푸틴의 야욕이 수포가 되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기를
7. 우리 자녀들 에스더와 바울의 직장 생활 & 배우자 만남을 위해

이렇게 멕시코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나요!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 또한, 멕시코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며 귀한 선교비로 동역하여 주시는 교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최 재 민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운난창 종족

▲ 인구 인구 1,81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0%, 무교 9.8%, 복음화율 0.2%

▲ 복음 매체 성경번역 요청됨,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필

창족은 중국 내 가장 큰 종족 중 하나로 16개 언어 그룹이 있다. 광둥성 운난에 살며 주로 농경 생활을 한다. 정령 및 조상숭배가 혼합된 종교 형태를 띤다. 정령을 두려워하여 이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19세기에 복음이 전해졌으나 여전히 불모지다.

▲ 기도제목

1. 운난창어 성경이 없는데 이들의 말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많지 않은데 부흥을 주시도록
2. 정령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 운난 창 종족 사람들이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6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강단을 향한 열정

요즘은 별로 그런 말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때 가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꿈은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마나 무대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표현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끔찍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가수가 무대에서 한참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터진다면 관객이나 무대의 책임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총격이나 별다른 사고가 아니라 심

장마비로 쓰러졌다면 대책도 없고 끔찍한 사고이고 청중이나 방송을 통해 관람하던 분들의 당황은 말할 수 없으리만큼 처참하리라. 이름을 잊었으나 한 때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평생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마지막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삶을 끝냈고 싶다고 하셨다. 위의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자

신들의 눈앞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예배는 어떻게 되겠으며 성도들의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그만큼 강단을 사랑하시며 말씀 증거에 헌신하시겠다는 뜻이지만 참으로 말과 표현은 조심스럽다. 나 역시 심장이 뛰는 한 말씀 증거에 생애를 바치고 싶지만 그 날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에 두려운 것이다 revpeter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도서구입처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BACK TO JESUS

한국의 미래를 전망할 때 밝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0.78명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어느 미국 교수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까지 했습니다. 혼인감소와 더불어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사교육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리다가는 100세 시대에 노동력은 떨어지고,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위기입니다. 학생이 없어 문 닫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만 있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교회와 맞물려서 총체적인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안은 올바른 자녀교육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병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의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주의 전에 나와 앞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훈계나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팽배한 세상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Back To School"이 "BACK TO JESUS"가 되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에 2:19) bible66@gmail.com

김영철과 함께하는 2023 밀알의 밤

남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주최 2023 밀알의 밤이 ANC온누리교회(9월29일)와 주님의영광교회(9월30일), 감사한인교회(10월1일)에서 개최된다. '2023년 밀알의 밤'은 개그맨 김영

철'을 메인게스트로 초청했다. 다음은 지면을 통해 들어 본 개그맨 김영철의 삶과 신앙이다.

<개그맨이 아닌 연가자의 꿈을 꾸던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은 1974년 경북 울주군에서 태어나 코미디언이 아닌 연가자를 꿈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탤런트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고 주위에서도 개그맨이 더 어울린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1999년 KBS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초창기 《개그콘서트》 프로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사랑이~ 야속하더라~" 등의 유행어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특히 "힘을 내요 슈퍼~ 파워~"은 당시 주말프로에서 고정출연이 한 번도 없었던 김영철을 현재의 위치까지 올려준 일등공신의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이후 드라마 《부모님전상서》를 통해 연기에도 도전했으며,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쌓아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 중 하나인 호주의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김영철의 조크 콘서트'라는 단독 코너를 선보였고, 2008년에는 영국 BBC에서 방송하던 일종의 재연 프로그램에 일회성으로 섭외되기도 했다. 또한 독서 양도 풍부해 라디오 진행 중에 자신이 읽었던 책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연예인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웃게 해 드리고파>

하지만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웃게 드리고 기쁘게 하는 개그맨이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데에는 동료 개그맨 '이성미'와

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는 현실적 염려와 근심보다는 미래에 주님께 받을 축복과 상금을 먼저 생각하고 기뻐하며 기대하게 됐지요. 걱정을 해도 365일이 가고 안 해도 365일이 가는데, 이런 현실에 가슴 졸이며 우울해하기 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천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는 김영철에게 동료들은 '안 우울한 연예인 1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특히 김영철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중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입방정'의 은사라고 한다. 연예 생활이나 교회 사역에서 누가 뭐 해보라고 권면할 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입방정'을 떠니 그 일은 꼭 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교인들이 절제된 생활



신의 인생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한번은 누군가가 제 트위터에 '뽀뽀'만 찍히지도 못했는데 여름이 된 것 같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보니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해줬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살다보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포장도 하게 되

“걱정을 해도 365일이 가고 안 해도 365일이 가는데 이런 현실에 가슴 졸이며 우울해 하기 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천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박미선'의 역할이 컸다고 고백한다. 그는 "교회에 함께 나가자는 이성미의 거듭된 권유에 '누나 이민 가면 교회에 나갈게요'라고 농담을 했는데, 일주일 후 정말 이성미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것이었다. 이성미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박미선의 강권에 못 이겨 '총신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총신교회에는 이성미, 박미선 외에도 송은이, 최화정, 김지선, 이영자, 황보, 김석훈 등 여러 연예인들이 함께 하고 있어 김영철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신앙의 동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

김영철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경험하

을 하는 것을 보며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담배 끊을 거예요'라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실제로 담배를 끊게 되었고, "영어 학원을 아지도 다니고 있나?"라는 목사님 질문에 그냥 단순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네, 영어예배도 제가 통역하려고요!"라고 입방정을 떠 덕분에 진짜 예배를 동시 통역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며, 해외 코미디 방송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남은 삶 살고파>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

랑아요. 하지만 그러면 또 새롭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포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라고.

인기 연예인이란 화려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좇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코미디언 김영철. 그가 이번 밀알의 밤에서도 진솔하고 따스한 이야기로 삶의 무게에 지친 교포들의 마음에 한줄기 화사한 소망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자세한 문의는 562-229-000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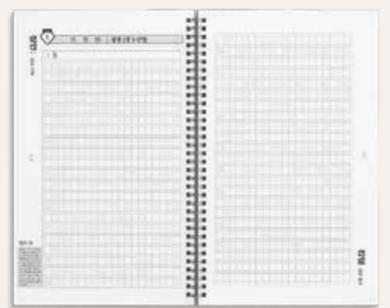


교회 단체 주문시 교회로고로 바꿔 드립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p@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